

월간 내일

고용노동 정책 예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다같이 점핑점핑

스트릿 우먼 파이터 댄서
효진초이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Keep going!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안전한 일터를 향한
든든한 약속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우리의 청춘에 새겨진
잊히지 않는 설렘

월간 내일

02

VOL. 561



표지이야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다같이 점핑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1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04

Keep going!



행복 일터



04 Intro

Keep going!

08 Topic

2022년 일자리사업
규모를 알아볼까요?

10 Plus

늘봄이가 답해드립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Q&A

14 System

2022년 일자리 예산 사업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8 People

황금리더 효진초이의
고민상담소

희망 일터



- 26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안전한 일터를 향한 든든한 약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30 굿&굿 오피스**
기업의 지속적 성장,
신중년과 함께합니다!
-한국후꼬꾸(주)
- 34 인생 2막**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 끝에서
행복을 찾다
-유홍석 씨
- 38 청년꿈터**
시나리오 쓰며 키운 꿈
게임 기획자로 더 크게 펼쳐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안성현 씨
- 42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6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 60 미디어 속 노동읽기**
우리의 청춘에 새겨진
잊히지 않는 설렘
- 64 JOB툰**
신년맞이 대이동 · 직장인 고민거리
- 66 직장탐구생활**
신조어로 보는 진화하는 오피스 환경
- 68 고민타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적응하고 싶어요
- 72 직장인 건강상식**
약 종류별
같이 섭취하면 안 좋은 조합. zip
- 74 주말에 뭐 할래?**
2월 영화·도서·음반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 82 애독자 퀴즈**



Keep going!



일 년 중 2월은 가장 흥미로운 달입니다.
새해 결심했던 새로운 다짐들과 기존의 습관들이 부딪히고,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옷차림도 모호해지곤 하죠.
계획과 현실의 경계에 서서 지친 분이 있다고요? 걱정마세요!
아직도 올 해는 열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2022
GOALS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는 말을 뜻하죠.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결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자책하는 말로 “또 작심삼일 하고 말았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작심삼일했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이죠. 1월이 지나고 느슨해진 계획과 애매해진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바짝 여미어 보면 그만입니다. 허무맹랑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결심한 것에 필요한 에너지와 돈,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것도 좋겠죠.

고용노동부도 2022년 계획한 것들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해 책정된 일자리 예산인 31조 1,331억 원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죠. 준비된 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편성된 예산이 고용노동 정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매일 예산을 점검하고 살피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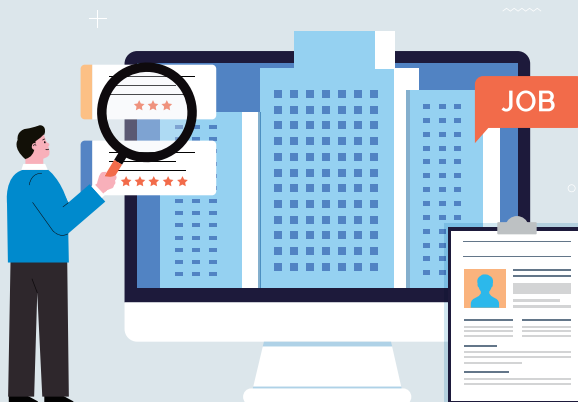
2022년 2월 월간내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민과 관심이 가득 담긴 계획표와 같은 고용노동 정책 예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2022년 일자리사업 규모를 알아볼까요?

지난 2021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의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전 년도와 비교해서 알아볼까요?



2022년 일자리 예산

31조 1,331억 원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억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일자리사업 예산	180,181	212,374	254,998	301,436	311,331
전년대비 증가율	(13.0)	(17.9)	(20.1)	(18.2)	(3.3)
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4.2 [428.5조]	4.5 [470.5조]	5.0 [512.3조]	5.4 [558.0조]	5.1 [607.7조]

* '21년 예산은 '22년 폐지·제외된 사업을 제외하여 산정한 규모임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 1,33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은
5.1%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억원, %)>

유형	‘21년(본예산)(A)	‘22년(B)	증감(B-A)	증가율
일자리사업 총괄	301,436	311,331	+9,895	3.3%
1. 직업훈련	23,340	25,303	+1,963	8.4%
2. 고용서비스	17,000	20,044	+3,044	17.9%
3. 고용장려금	80,935	77,731	△3,204	△4.0%
4. 창업지원	24,176	28,091	+3,915	16.2%
5. 직접일자리	30,894	33,200	+2,306	7.5%
(인원)	1,007	1,056	+49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25,090	126,933	+1,843	1.5%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신기술, 신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이 크게 증가했어요. 각각의 분야에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 정부 일자리사업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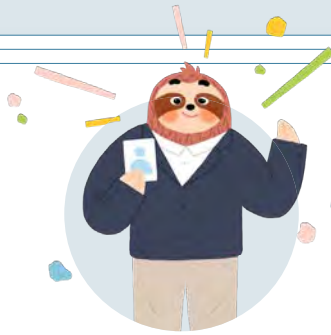


늘봄이가 답해드립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Q&A

예산 정책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용어가
궁금하거나 예산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곤 하죠.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늘봄이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부 일자리 예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Labor Market Programmes



Q1. 정부 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GO



정부 일자리사업이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지원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Q2. 정부 일자리사업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가 궁금해요!

GO



앞서 소개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은 정부 일자리사업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① **(직접일자리)**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에 포함
- ②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기간 단축
- ③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 ④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⑤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
- ⑥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Q3.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잘 사용되었나요?

GO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1년 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고, OECD도 한국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어요. 정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20년 77.3만명, '21년(~11월) 33.0만명),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년 179.2만명), 공공·민간일자리 창출('20년 158.5만개, '21년(~9월) 130.6만개)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8.11):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을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

*** OECD 고용전망 2021(Korea Country Note, '21.7.7): 한국 고용률은 '21.3분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임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성과 국제비교>

구분	캐나다	한국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20.2월 대비 '21.9월 고용회복률 (%,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	100.0	99.8 (9월) 99.9 (10월)	99.1	99.1	99.0	98.6	98.6	96.8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증감률(%)	-5.2	-0.8	-1.5	-1.3	-0.3	-2.0	-0.7	-6.2
'19년 대비 '20년 실업률 상승폭(%p)	+3.8	+0.2	+1.3	+0.6	+0.7	-0.8	+0.4	+4.4

* 출처: 각국 통계청, OECD Stat(LFS by sex and age, '21.11.11 추출)



2022년 일자리 예산 사업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1조 1,331억 원!

이 일자리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데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지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 중심 고용회복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합니다.

* <'22> 0.5조원/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월80만원 12개월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자부담을 조정하고, 7만명을 지원합니다.

* <'21> 1.4조원, 10만명 → <'22> 1.3조원, 7만명

* (자부담률) ▲30~49인: 0→20% ▲50~199인: 20→50% ▲200인 이상: 20→100%



☑ 청년의 취업가능성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 확대(10만명→17만명)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확대하고(대학 4→3학년),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 K-Digital Training 1.7만명 → 2.85만명, K-Digital Credit 4만명 → 5.5만명

▶ 청년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22> 170억원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 등 지원

☑ 청년고용정책 현장 안착

▶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22> 325억원, 총 100개소 운영

▶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Open API 구축)을 추진합니다.

* <'22> 41억원, 맞춤형 청년 정책·공간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집중 추진

▶ 폴리텍(공공), 특성화고 등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 폴리텍, AI+x 학과 신설(5개), 탄소중립기술인력 양성학과 신설(5개)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21년) 8개 → ('22년) 40개 학과

▶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과기부 우주기술전문연수(4억→9억),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7억→10억)

* 문체부 게임전문학교(18억→40억), 산업부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14억→18억)

* 과기부 데이터융합인재양성(19억→21억), 과기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13억→16억)

☑ 노동전환 선제적 대응

▶ 신산업에 적시 인력을 공급하고, 위기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주가 직무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노사 고용안정 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

▶ 노동전환 지원센터(컨설팅 등)와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노동전환 지원센터) 46억원, (노동전환 분석센터) 11억원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을 신설합니다.

* 고용부, 산업구조대응변화 등 특화훈련 신설(2.5만명, 951억원)

▶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 노동전환 특화공동훈련센터(신설, 150억원),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센터(183→165억원)

*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490→510억원), 환경부 유망 환경산업분야 특성화대학원·고등학교(396→449억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1.2→1.5조)합니다.
- ▶ 영세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21>0.8 → <'22>1조원(일반근로자 91만명, 일용 43만명, 예술인·특고·플랫폼 39만명)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사회보험료)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17억원)
(컨설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인증요건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2억원)

*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 지원(최대 3억원)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여성)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확대(3+3 육아휴직제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도 확대합니다.

* 여가부 새일인턴운영 <'21> 236억원, 0.8만명 → <'22> 259억원, 1.0만명
고용부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21> 33억원 → <'22> 48억원

- ▶ (고령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54억원, 6천명),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충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80억, 3천명), 근로지원인 사업을 확대(8→10천명)합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30~80만원12개월 지원

- ▶ (취약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합니다.

*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366억원→438억원), 농림부 농촌고용인력지원(53억원→111억원)
여가부 새일센터 운영지원(247억원→258억원), 문체부 은퇴선수지원(13억원→15억원),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262억원→306억원)



황금리더 효진초이의 고민상담소

효진초이 댄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출연자



MZ세대 취준생이 꼽은 스우파의 좋은 리더로 꼽힌 효진초이. 팀원에 대한 무한 긍정과 신뢰, 팀원의 가능성을 믿고 밀어주는 리더로 BEST 리더상으로 뽑혔는데요. 에너지 넘치는 긍정 리액션으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효진초이와 함께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위한 고민상담소를 열어봅니다.



첫 번째 사연 ▶▶ 면접에서 파워당당하려면?

hey~ 언니 저는 중요한 면접을 앞둔 취준생이에요. 당장 일주일 후에 면접을 봐야하는데, 친구와 가족들 앞에서 모의면접을 하면서 대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똑딱거리는 인간이라니요. 심지어 면접 준비의 기본 이라고들 말하는 1분 자기소개마저 제대로 대답 못하고 별 별 떨어졌어요. 댄서들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잖아요. 혹시 언니는 스우파 같은 무대나 대회에서 춤출 때 떨리지 않으셨나요? 언니처럼 면접에서 많이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우황청심환 같은 언니의 꿀팁이 필요합니다!



효진초이의 황금처방전



제가 스컬파에서 고등학생 멘티 친구들에게도 했던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는 내가 정답인 것처럼 자신을 믿고 쏘아 붙이라고요.** 제가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도 인생에도 정답은 없잖아요. 자신을 신뢰하고 일단 밀어 붙이세요!

고용노동부'S WOW 포인트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복장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죠? 취업준비생을 위한 면접 정장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 사연자처럼 면접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전국 각지의 청년센터에서 면접 컨설팅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도 컨설팅 받은 후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면접에서 취뽀하자구요!

두 번째 사연 ▶▶ 예술가로서 살아가려면?

안녕하세요, 저도 춤으로 인생의 진로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한국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진로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내내 꿈꿔온 저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차라리 평범한 직장에서 고박고박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효진초이 님도 14년째 춤을 추면서 살아오셨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술가의 길은 왜 이렇게 멀고도 험한 걸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효진초이님이 예술가의 길을 지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효진초이의 황금처방전



제가 허리 부상이 있었을 때 통장에 0원인 상태로 6개월은 산 적이 있어요. 그 때 저는 불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를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일을 진지하게 사랑했거든요. 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 커버가 된다면 이 일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셨다면 스스로를 믿으세요.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의심할 시간에 움직이자고요.**

고용노동부'S WOW 포인트

실제 예술가로 지내다 보면 수입에 대한 염려가 크실 텐데요. 만약 꿈을 포기 하지 않고 싶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가입해서 예술활동도 고용 환경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죠?

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 커버가 된다면 이 일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셨다면 스스로를 믿으세요.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의심할 시간에 움직이자고요.

매일 밤 울면서 서울에서 버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 같아요. 그 때 그 간절함으로 버텨서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가 리아 김 선생님의 댄스 학원 수강이었고, 그 기회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 춤에서 간절함이 보여서 저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사연 ▶▶ 취업준비에서 지치지 않는 법?

지방에서 상경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하필 졸업 시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채용도 줄고, 그나마 인턴 기회라도 잡아보고자 무작정 상경했는데, 역시 서울은 출고 일자리 구하기는 몇 달째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지만, 생활비도 부족해서 끼니를 삼각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모으는 아르바이트 비용도 당장 다음 달 월세로 나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효진초이 언니도 부산에서 상경에서 오랜 시간 혼자 버티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럴 때에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리액션 부자 효진초이 언니의 리액션이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잘 될 거야라고 힘나는 리액션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효진초이의 황금처방전



저는 편의점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사연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부산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안락하게 지내다가 제 발전과 꿈을 위해서 서울에 상경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 인생의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매일 밤 울면서 서울에서 버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 같아요. 그 때 그 간절함으로 버텨서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가 리아 김 선생님의 댄스 학원 수강이었고, 그 기회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 춤에서 간절함이 보여서 저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했어요. **이 사연자 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기야. 진짜 잘 될 거야.**

고용노동부'S WOW 포인트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만 15~64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지원 형태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사연자 분께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번째 사연 ▶▶ 건강한 직장인이 되려면?

코로나 때문에 나날이 집에서 살만 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2년을 통째로 순삭 당한 기분이라 기분이 좋지 않은데 게다가 살이 너무 많이 찌서 늘어가는 뱃살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한 예능에서 효진초이 님이 예전에 다이어트 댄스 강습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각종 재택근무로 집에서 찌들어가고 있는 불쌍한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댄스 동작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효진초이의 황금처방전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깨가 굳어 있는 동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종일 노트북을 만지거나 폰으로 업무를 보거나 하기 때문에 팔과 어깨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팔을 거드랑이에서 떼고 경직된 어깨와 팔 근육 등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팔을 들고, 내리고, 대각선으로 하고 짹 펼치면서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굳은 어깨와 몸에 활력을 줍니다.



Q. 고용노동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한 안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간내일 구독자 여러분, 댄서 효진초이입니다. 지난 한 해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랑 해주신 덕분에 저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영상과 지면으로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Q. 오늘 받은 4개의 사연들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과의 싸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댄서는 춤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때로 그 사실이 부담스럽게 다가온 적은 없나요? 직업인으로서 댄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다치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춤이었고, 그걸 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Q. 좋은 리더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국민 엄마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리더로서 사는 것과 팀원으로 사는 삶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저는 완전 팀원이요(웃음). 제가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 리더로서 저를 너무 괴롭히는 스타일이어서 마음 편하게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팀원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좋다고 생각해요.

Q. 하반기 마비라는 큰 시련 이후에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스스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비결이 있나요?

작은 기회들, 댄서로 할 수 있는 일 뭐든지 하면서 하루에 스케줄을 5개씩 하면서 2년간 몸을 혹사시키곤 했어요. 그 날도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가는 길에 쇼크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제 몸 상태보다는 일에 지장이 가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던 거 같아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 후에 스스로를 많이 돌보고 애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021년은 효진초이님께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 2022년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나요?

현재의 관심과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제가 사랑하는 춤을 추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Q. 리액션 부자로 유명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일터 안팎에서 지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응원의 리액션 보여주시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순간도 지나갈 테고, 저 효진초이도 늘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 여러분 모두 힘내고,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함께 힘내요. 파이팅!



황금리더 효진초이의 고민상담소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세요!

#효진초이 #스우파 #황금리더 #국민엄마
#원트 #원밀리언 #고용노동부 #고민상담소



Hopeful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26 안전한 일터를 향한 든든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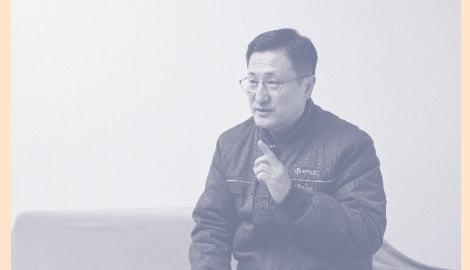
30 기업의 지속적 성장,
신중년과 함께합니다!

34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 끝에서
행복을 찾다

38 시나리오 쓰며 키운 꿈
게임 기획자로 더 크게 펼쳐요!

42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6 고용노동 뉴스





안전한 일터를 향한 든든한 약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누구나 안전한 일터를 꿈꿉니다. 매일 나서는 일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일상이 흔들리는 일은 없죠. 일터를 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또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일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는 늘 고민해왔습니다. 2022년 1월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일터, 더욱 안전해 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

지난 1월 27일 더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안전수칙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1월 12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에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배포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컨설팅 실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교육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2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장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험 요인 개선은?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를 점검 후 불량사업장 감독 통보

집중 감독을 통한 위험요인 개선 유도

대형 화학 사고 예방

▶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 실시
*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클린사업	건강디딤돌사업	산재 보험료 감면
예방을 위한 지원은?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지원, 노후·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기구 교체 비용지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위험성 평가를 인증 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2022년 산재예방분야예산 1조 1천억원 규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www.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업에서 시작되는 일터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죠.

여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넷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함께 만드는 일터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의 지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했죠.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도 보급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자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지원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또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

#안전한 일터를 향한 모두의 노력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죠.

이러한 모두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송업, 도·소매업 등 위험 업종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2천개의 건설 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자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지원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약속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늘봄이's Advice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환,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더 많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 신중년과 함께합니다!

한국후꼬꾸(주)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식은 누구나 쌓을 수 있지만, 경험과 노하우는
현업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발휘한 신중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높이 산 한국후꼬꾸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중년 구직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한국후꼬꾸는 차별화된 고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강소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탑재되어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는 댐퍼폴리와 자동차 유리 전·후면의 물기를 제거하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주로 납품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가스켓, 수소전기차 스택 가스켓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후꼬꾸는 1987년 설립 이래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일자리가 안정돼야 직원들이 마음껏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경영진 특유의 인재 철학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2022년 1월 현재 448명의 직원 모두가 100% 정규직이며, 앞으로 인력 충원 시에도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 정규직 채용은 자칫 사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내실 있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의 직무 전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꼬꾸 특유의 상생

Φ FUKOKU KOREA CO.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나이와 성별, 학력을 따지지 않는 근로자 채용도 한국후꼬꾸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방대 출신 관리직 비율이 72%에 달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9.2%로 비교적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 구직자도 적극 채용함으로써 신구가 조화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중년 채용으로 끌어올린 기업 경쟁력

신중년 구직자는 오랜 직장생활을 바탕으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후꼬꾸는 이 점에 주목, 자리에 알맞은 신중년을 채용해 왔으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 박재완 부장은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신중년 채용 성공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한국후꼬꾸에 입사했습니다. 이전 직장과의 고용 계약 종료 후 200여 곳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암담한 상황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났고, 저의 오랜 인사 업무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에 부합하는 신중년 구직자라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후꼬꾸는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할 때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를 직접 찾아가 해당 직무와 채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부합하는 인재를 추천받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국후꼬꾸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구직자들과 만날 수 있었으며, 해외 법인장·공장 보전부장 등 주요 보직을 유능한 신중년으로 채웠습니다.

“저도 신중년 구직자였기에 채용 과정을 거치며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용 불합격자를 위로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구직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신중년 구직자 5명 채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든든한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동반 성장

한국후꼬꾸가 신중년 고용 창출 및 안정에 진심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재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정년을 앞둔 직원들과의 심층 면담과 내부 평가를 통해 지금껏 일해 온 자리에서 그대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도 삭감하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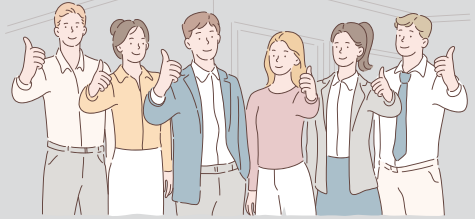
“직장인이 한 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으며 성과 또한 높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재인 동시에, 그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적임자죠. 이런 이유로 작년 10월 정년 퇴직자 재고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했으며, 정년 퇴직일이 지난 직원 6명이 이전과 변함 없이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한국후고꾸가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아울러 직장 동호회 지원, 식당 개선, 직원 건강검진, 통근버스 운행, 직원 숙소 제공 등 중견기업에 걸맞은 복지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후고꾸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 ‘신중년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한국후고꾸의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비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채용 성공률 향상
- 신중년 구직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정년 연장 희망 직원 적극 재고용
 - 정년 연장 후 임금 삭감 없음
- 직원 100% 정규직화
- 직무 전환 희망자대상 사내 교육을 통한 전환 배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 끝에서 행복을 찾다

유홍석 씨



아침이면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일터로...

우리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은퇴는 쳇바퀴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굴러가는
쳇바퀴는 방향을 잡는 일이고,
정해진 속도가 아닌
나만의 빠르기로 조절하는 일이지요.
은퇴 이후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유홍석 씨에게서 행복을 배워봅시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자화상

청년 유홍석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수산물 가공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살았죠.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독립해 작은 기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햄버거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새우버거 패티를 만들어 납품했는데, 연매출이 100억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단체급식 등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늘리고 설비를 확충하면서 사업체가 점점 커졌죠.

“그때는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찌나 신이 나던지…….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지만, “잘 나가던” 사업은 햄버거를 정크푸드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와 다양한 먹을거리 문화가 유입되면서 점점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을 받던 곳에서는 자체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한순간 거래 중지를 해왔죠. 공장과 설비에 재투자했던 자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간 일궈온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유홍석 씨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일이 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황과 좌절의 시간은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과 친구들은 소소한 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영 한산도에 자리잡고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적한 바닷가의 시골집을 빌려 살면서 휴식과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소일삼아 일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일했죠.

언 땅에도 새싹은 나고, 봄은 오나니

가족의 묵묵한 응원과 친구들의 잔망스러운 일거리 만들기 덕택에 일상으로 복귀한 유홍석 씨가 한 것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자격증도 따고, 말하기 대회도 나가 입상하고, 혼자서 중국 배낭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죠.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법일까요? 유홍석 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입도를 결정했습니다. 좋아하는 한라산과 오름을 오르고, 올레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앙년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음일자리사업'에 지원했는데 41이

라는 경쟁률을 뚫고 도서관 사서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홍석 씨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관리하고, 책을 대여해주고 또 회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었어요. 일하면서 자기만족도 좋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서로 일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강수영 소장의 권유로 수기공모전에 응모하고, 제주MBC 토크콘서트에도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들려줄 기회가 찾아왔죠. 또, 장애인단편영화에 출연, 연기라는 것을 해볼 기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즐거며 하는 일이 모두가業이 된다

유홍석 씨의 현재 직업은 부산 중구 창선상가변영회 사무국장입니다. 직장생활과 기업경영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방법을 함께 찾는 컨설팅터트이기도 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모두들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확신을 갖고 싶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디카시 - 디카(디지털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자신이 디지털카메라로 시적 감흥을 일으키는 형상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5줄 이하의 짧은 문자로 표현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며, 유튜브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를 운영하는 유튜브버입니다. 혼자 걷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 갈맷길을 함께 걷는 갈맷길길안내 자원봉사자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사는 바쁜 일상에도 유홍석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으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은퇴는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옷을 입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컨설팅하다 보면 모두들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확신을 갖고 싶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은퇴는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옷을 입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오히려 더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걸요. 소소한 일상을 시로 기록하기도 하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방송도 해요. 즐거며 하는 일이 모두가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든 시기 유홍석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인연’이었습니다. 유홍석 씨는 “은퇴 이후 윤택한 생활이 펼쳐진다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현역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삶을 내려놓고 찾아낸 값진 경험이 유홍석 씨의 말에 묻어 났습니다. 편안한 그의 미소에서 행복을 배워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안성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시나리오 쓰며 키운 꿈
게임 기획자로
더 크게 펼쳐요!



누구나 한번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현 씨에게도 비슷한 꿈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일이 펼쳐지는 시대,
‘게임’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안성현 씨가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서 게임 기획자로 영역을 확장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었습니다.

게임세계를 더 멋지게 펼쳐낼 수 있도록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화 시나리오에 도전했습니다. 2년 동안 영화 시나리오 쓰기에 매달렸지만 어찌 보면 습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도 당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게임회사에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즐겨하며 성장했던 2030이라면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게임 업계에서의 생활. 취미이자 특기인 글쓰기를 평소 좋아하던 ‘게임’에 접목하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는 분명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나리오를 아무리 잘 써도, 이를 현실화하려면 또 다른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게임 시나리오도 기획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가려면 결국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게임 시나리오를 잘 써도 기획 단계에서 막히거나, 시나리오에 설정한 부분들이 개발을 거치면서 달라지더

라도 사용자들은 시나리오가 별로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획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게임 기획자로 직무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안성현 씨. 단순히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근무 환경으로 한 단계 옮겨가고 싶은 바람도 컸습니다. 그러자면 다른 기획자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무엇’을 갖추어야 했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며

게임 기획자로 전직을 계획했지만, 게임 기획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안성현 씨. 사실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며 이미 게임 기획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은 있었기에, 기획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게임 기획자는 시나리오 작가보다 개발자와 디자이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게임 기획서만 준비해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실제 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련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즈음 우연찮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과 디자인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분야로 전직할 계획은 아니었기에 내심 비용 부담을 느꼈던 차였죠. 그래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스스로 수강과목을 골라서 정하고 발품을 팔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수원 인계동에서 <C, C++프로그래밍>을 배웠고, 부천 상동에서 <시각디자인>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거주하는 인천에서 수원으로, 부천으로 오가며 부지런히 공부를 이어갔죠.

한계를 깨고 미래를 열어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성현 씨가 가까운 학원을 두고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오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2년 가까이 일했던 만큼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배우는 일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 지원이 되는 데다 100시간

내외의 비교적 짧은 수업이어서 저에게는 부담이 적고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만약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비용적인 허들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안성현 씨는 게임 기획자로서 꿈꾸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입사를 희망하는 5대 IT회사 중 한 곳이죠. 원하던 직무로 선망하던 직장에 취직한 안성현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보니 되더라’라는 능동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저는 ‘이 업무는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정해둔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료들에게는 못해서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더라고요. 계속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혀 다른 분야의 훈련을 하면서 그 장벽을 모두 깰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동료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게 기획자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은 갖추게 된 셈이죠.”

안성현 씨는 자신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한계를 넘어본 경험이 있기에, 다음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취업자's 꿀팁>

사람마다 관심사와 이력은 다르잖아요. 기존 프로그램이 자신의 커리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수강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수업을 들으면 해당 내용을 취업에 활용할 기획서와 포트폴리오에 바로 녹여냈어요. 취업 준비 시간을 절약하면서 배운 내용을 복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정년, 변화하는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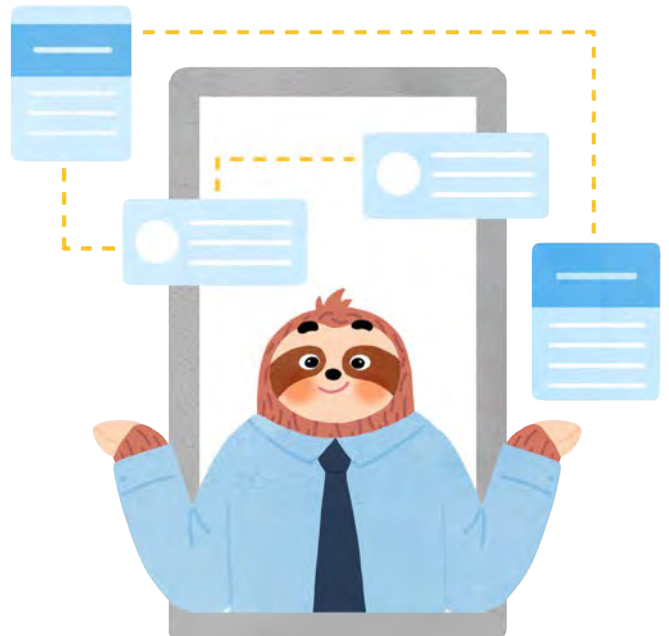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일본의 새로운 노동시장, 어떠한 모습일까요?
새로운 총리와 함께 일본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또한 예외가 아니죠.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정책들은 일본 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21년도의 노동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노인고용안정법 개정안(ASEEP)

가장 먼저 소개드릴 정책은 노인고용안정법 개정안 (Amendments to the Act on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rsons) 이에요. 실시되기 전 노인고용안정법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현행법상 65세 이하로 설정하는 사업주는 새 개정안에 따라 정년을 수정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개인이 65세까지 다른 조건으로 재취업하는 제도를 도입이 필수였어요. 이는 2021년도 발효된 ASEEP 개정안에 따라 고용주가 70세까지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이가 상승하였습니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6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설정한 고용주는

- 1)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 2) 정년을 폐지한다
- 3) 정년퇴직 연력에 도달한 직원들은 70세까지 다른 방식으로 고용한다
- 4) 직원이 70세가 될 때까지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조직이 시행하는 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서 실시해야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또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고용주는 먼저 조합원이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노동조합(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종업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요.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 개선법(AIEMPF)

두 번째로 소개드릴 새로운 정책은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 개선법 (The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Management for Part Time and Fixed Term Workers) 이에요. AIEMPF는 지난해 시간제·기간제 근로자(파견 노동자 포함)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개정되었고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특히 AIEMPF는 사업주가 직무와 책임 수준, 직무기술·과제 변경범위 등을 고려해 정규직과 파트타임·기간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급여·상여금 포함)에서 불합리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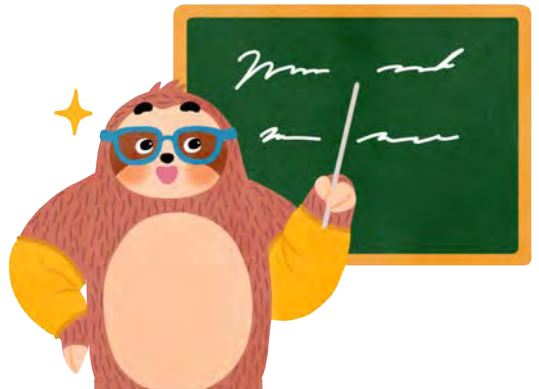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AEPPD)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정책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Employment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입니다. AEPPD에 따르면 고용주는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해요. 일본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 할당량이 2.2%에서 2.3%로 증가했다고 해요. 사업주가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일본노인·장애인고용기구(JO)에 매달 5만 명의 장애인 고용 부족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법률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일본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이 노동시장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들은 개정해나가는 것처럼, 세계 전반적인 노동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요. 한국도, 일본도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네요!

* 참고자료

·미국-아시아 법률 회사 Herbert Smith Freehills LLP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1fdbcc7-c0fe-4eff-be2c-db377fbe5170>)



MOEL News

1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하여(행안부→광주시), 탐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합니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1.21.~)을 구성하여, 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합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1.13~, 본부장은 1차관)도 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현장 수습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행안부는 근로자 가족과 인근건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 활동 등 피해 지원을 총괄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 이번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구조 활동(소방청), 타워크레인 제거(고용부), 붕괴 건물 안정화(국토부), 근로자 가족 지원(행안부) 등 관련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안경덕 장관은 “신속한 근로자 탐색·구조,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고 언급한 후, "오늘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붕괴사고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탐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이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금주 중 배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 12일,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에 배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12월말)했으며, 금년도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2.1.4.)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목인 및 방지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론펙스를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하여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 1천억원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3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22년 주요 고용정책 과제와 '22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및 조기집행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12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일자리 상황이 어려웠지만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1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서는 취업자가 77만 3천명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100.2%의 고용 회복을 달성했습니다. 고용률(계절조정)은 67.4%를 기록하여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회복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OECD 주요국 중 100% 이상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정도이고,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회복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느립니다.

고용회복의 질적인 측면도 양호합니다. 전문과학 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이 일자리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의 경우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보다는 돌봄·복지수요의 추세적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올해 민간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BIG3, DNA,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올해 20개 신기술 분야에 1.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만 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K-디지털 크레딧과 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여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도 지원합니다.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5.5%로 코로나 이전 수준(43.4%)을 넘어, 2005년 3월(45.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력직 중심 채용이 확대되는 등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올해는 특히 청년이 양질의 민간일 자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것입니다. 쿠팡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 중견기업까지 참여시키는 「청년희망 ON」 시즌2를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참여기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삼성 SSIFY 등 3,100명 규모의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교육생 모집,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대상도 확대하

겠습니다.('21 1.7만명 → '22 2.9만명)

한편, 30~4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립니다. 특히, 30~40대 여성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새롭게 운영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인턴 지원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돌봄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30~40대는 제조업, 도소매업의 취업 비중이 높는데, 이들 산업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노동전환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5개 부처,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전직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전환 지원정책과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전환 지원정책을 노동자와 기업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정책과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일자리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4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보고 및 간담회를
개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4개 기업(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이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 직무교육과 기업별 심화 교육·현장실습을 결합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를 고려하여 온라인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되, 호텔 및 바리스타 관련 직무는 현장실습도 병행했습니다.

❶ (전 온라인 과정) 에스케이하이닉스(29명), 엘지전자(38명)는 기초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각각 반도체 공정, 제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❷ (온라인+오프라인) 또한, 롯데호텔(19명)과 스타벅스(40명)는 기초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되, 내부 훈련시설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기업별 일경험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청년 참여자들도 참석하여, “이번 과정을 계기로 참여기업에 내 회사 같은 애착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학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실제 직무체험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2년도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21년 참여 이력이 있는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준비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전 이력서·자소서 작성, 참여 후 현직자 피드백 제공 등 구직활동 전 과정을 사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에서 확인 및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하며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의 일경험 있는 신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일경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2022년에도 계속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1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2번째 단체로 인증하는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추진 경과 발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정보기술(IT) 분야 경력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인 「부스트코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부스트캠프」를 운영하여 청년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비전공 청년들은 재학 중 「부스트코스」 수강을 통해 정보기술(IT) 기초역량 및 경험을 체득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와 함께 「부스트캠프」에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보기술(IT) 분야 경력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네이버(주)와 청년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주)는 자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형별·지역별 청년 정책 맞춤형 검색과 일반 정책상담, 심층상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조규찬 이사장은 “열정 있는 누구나 정보기술(IT) 분야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부스트코스」와 「부스트캠프」가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22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1호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셔서 의미가 깊다”라며,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부스트코스」의 수준 높은 강좌를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점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개발자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부스트코스」와 「부스트캠프」와 같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거쳐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정보·상담 종합플랫폼인 「온라인 청년센터」 홍보를 위해 네이버 누리집의 광고란을 제공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훨씬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국무총리실의 「청년희망ON」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 일경험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채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모집·채용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커넥트재단 등 총 12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2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기업 및 단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2년에는 170억 원 규모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기업 주도의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가 중소·중견기업 등 경영계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6

고객상담센터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 1월 13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천안센터(충남 천안시)를 방문하고,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장관은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천안센터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등을 살펴보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1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주)메이크인(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자, 구인수요가 각각 16%, 33%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과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와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17,302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중 1,136개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민간기관들이 인적·물적 기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의 인적·물적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 상담원의 교육, 컨설팅·지도를 전담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성을 갖춘 직업상담사 배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출제과목·기준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실무역량을 갖춘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장관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그 법적 기반이 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8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일,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배달플랫폼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2.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3.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기타 종사자 지원

-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He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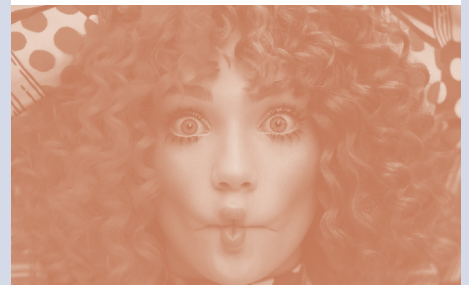


인생 2막, 볼을 커다

-
- 60 우리의 청춘에 새겨진
잊히지 않는 설렘
 - 64 신년맞이 대이동·직장인 고민거리
 - 66 신조어로 보는
진화하는 오피스 환경
 - 68 빠르게 변하는 사회
적응하고 싶어요
 - 72 약 종류별
같이 섭취하면 안 좋은 조합. zip
 - 74 2월 영화·도서·음반 추천
 - 80 #내일스타그램
-



신년맞이 대이동 직장인 고민거리





우리의 청춘에 새겨진 잊히지 않는 설렘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높은 등수가 삶의 전부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꿈힐 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일터에 나선 지금. 더 이상 등수는 중요하지 않지요.
저마다의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난했으면 좋겠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연수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지요. 전교 꼴등 최웅과 짝이 되어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다는 제안에 응한 이유도 출연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노트에 그림이나 끄적이는 최웅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니 말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피터팬처럼 꿈을 좇는 웅이가 연수에게겐 버거웠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삼촌의 빛까지 떠안게 되자 마음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그 흔하다는 해외연수나 대외활동 경험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연수, 취업에 성공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 여기서 잠깐!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취업을 원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 I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II 유형으로 운영되는데요.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그 건물 일러스트,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웅이와 연수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 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나고 묻는 웅이에게 연수는 떠나는 순간에도 팍팍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지 않았죠. 연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 웅이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일명 밥수저를 타고 태어난 덕에 돈 걱정 없이 그리고 싶은 그림도 마음껏 그렸죠. 그렇게 오직 움직이지 않는 건물과 나무만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유명세도 얻었고요. 하지만 뭔가 빠진 듯 공허한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헤어진 연수가 찾아왔네요. 자신이 홍보하는 건축물을 그려달라면서요. 게다가 방송국에서는 그 시절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으로 성인이 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다시 돌아온 연수가 반갑기도 밍근기도 한 웅이. 이 계약, 체결해야 할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계약서 잊지 마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등 모든 예술인입니다. 드라마나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역시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 또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양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작가로 못다 이룬 꿈,
1인 자영업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요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후 단 한 작품만에 때려치웠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지요. 술과 음식,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그런 술이에게 요즘 고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시국 때문인지 파리만 폴폴 날리는 가게 사정이구요. 나머지 하나는 단짝 연수가 최근 전 남자친구 웅이를 만난 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술 마시러 와서는 혼자 화를 냈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사라지더니, 이젠 또 얼굴에 배설배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뭐 어때요. 잃어버린 첫사랑이 내 친구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줄 수 있다면 두 팔 걷어 부치고 도와줄 작정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요?

☺ **여기서 잠깐!** ✨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받으세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도 실직이나 산재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때 고용보험이 없다면 구직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산재보험의 치료비 지원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기준보수 전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을 늘렸습니다. 고용안정자금과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안쪽인간의 단상〉

직장인 고민거리



충근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는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은 바로



항상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먹고싶은 것도 없고



주변에 유명 맛집이 있어도 그림의 떡



결국 가는 곳은 항상 가는 그곳이져



신조어로 보는 진화하는 오피스 환경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환경에서의 근무 등이 활발해지면서
오피스 환경에서 쓰는 용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사용하는
오피스 속 용어들을 통해서 바뀌는 근무환경을 들여다 볼까요?





온택트

온택트는 비대면을 의미하는 Untact에 온라인의 on을 결합한 합성어인데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모든 의사소통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화상회의 서비스인 zoom, google meet 등을 활용해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온택트 근무가 활발해졌죠.



패스트힐링

패스트힐링은 빠르게 힐링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바쁜 직장인들이 힐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힐링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패스트힐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출시되고, 직장가에는 직장인을 위한 수면 카페 등도 생겼다고 해요.



스테이케이션

머물다는 의미의 stay와 휴가 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를 받아도 해외 등으로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름휴가철 흔히 해외로 나가던 과거와는 달리 해외여행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스테이케이션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워라블

워라블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 '워라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조어인데요. 일과 삶을 적절하게 섞는다는 의미로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을 줄인 말입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두지 않고 적절하게 섞어서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리기를 지향하는 요즘 직장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특히 재택근무 등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 같네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적응하고 싶어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나요?

Q1 댄서로 살면서 다양한 N잡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것을 사랑해서 오래오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배달,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개인 레슨 등등으로 근근이 수익을 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를 하다가 몸을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택배 상하차를 새벽에 하다가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확인하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몇 달은 아무런 일도, 레슨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배 아르바이트 회사 측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엄연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친 건에 그럴 수가 있나요? 지금 마땅한 수입도 없고, 원하는 춤도 추지 못하고 있어서 속상한 상황입니다. 저는 산재 보상을 받고 싶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①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②일정한 비율로 보상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운영하며, ③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이며, ④만일 업무상 질병과 같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



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실무상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상담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다 발목에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 적용이므로 만일 해당 회사가 상담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상담자의 회사는 1인 미만이나 국가기관 등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은 재해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발목 부상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와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미근로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등으로 조정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산재 발생 1개월 전 실근로일수가 적어도 22.3일을 초과한다면 조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산재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한 후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향후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아이를 낳고 집에서만 있다가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해진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을 하니까 어쩐지 편리하기는 하지만 제가 일일이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존에 일하던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고용측면에서 열악한 부분도 많고, 감정노동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며 건 바이 건으로 근무를 하면서 조금씩 월급여를 늘려 가는 중이었는데요. 한 고객님에게 상당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인 법이 없다보니 어디에 호소를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 중에 받은 인신공격이나 업무적 방해에 대해서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계속 이 일을 잘 하고 싶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상담자는 별도 개별 건으로 계약하여 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와 같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담자와 같은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 가사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등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 가능일, 가능시간, 가능지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받으며, ②1주 15시간 이상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받아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③계약된 시간 동안 일했을 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④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가사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서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의 종류와 제공일·제공시간, 휴게시간, 가사근로자의 안전과 그 밖의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담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과 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증요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담자는 현재 플랫폼 기반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의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상담자의 고용상 안정과 더불어 작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공기관 등이 다양하게 설립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가사도우미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원하던 중견기업에서 드디어 첫 직장으로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서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다만, 제가 계약은 처음이라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 전환 전에 1년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더 해보고 근무 평가 후에 정직원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대신 국민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준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아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지만 계약직으로 1년을 더 근무하는 것은 다소 고민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또 내일채움공제를 받다가 계약이 만료될 것도 염려가 되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현재 회사에서 3개월간 인턴 기간제로 근무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회사에서 1년 기간제 근무를 추가로 제안받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가 인턴으로 채용될 당시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상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을 한 경우라면, 상담자는 이미 정규직이므로 계약직 1년 적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턴 근로계약서상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턴 종료 후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형태는 양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담에서와 같이 상담자의 3개월 인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이후 1년 계약직 근로를 추가로 한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사항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향후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로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면, 상담자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2년 정부는 상담자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 종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채용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이고, 온라인청년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도 확대하여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 활용을 통하여 상담자에게는 고용안정이, 회사에게는 경영여건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Q4 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식업계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해왔는데요.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3년 일한 직장인데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준비를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전직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전혀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마음도, 재정적인 상황도 넉넉지 않고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여파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30대 중반이 넘어 다른 분야로 이직 및 전직을 시도해야 하여 여러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 등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1인당 300~500만원까지이며, 훈련비의 45~85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업종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전략업종 81개와 고용위기업종 22개 등 총 103개 업무에 대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해 해당 업종의 기업, 구직자, 이직(예정)자 등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폐업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를 ‘대지급금’이라 하는데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회사의 재직자·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 상한액 700만원, 퇴직

급여 등 상한액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직 근로자인 경우 진정·소송 당시 재직 중이며, 임금액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인 최저임금의 110%(주40시간 기준, 2022년 월최저임금 1,914,440원)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으나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최종 3년간 퇴직금을 연령별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담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부의 이직·전직 지원제도를 통하여 상담자에게 적합한 분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종류별 같이 섭취하면 안 좋은 조합. z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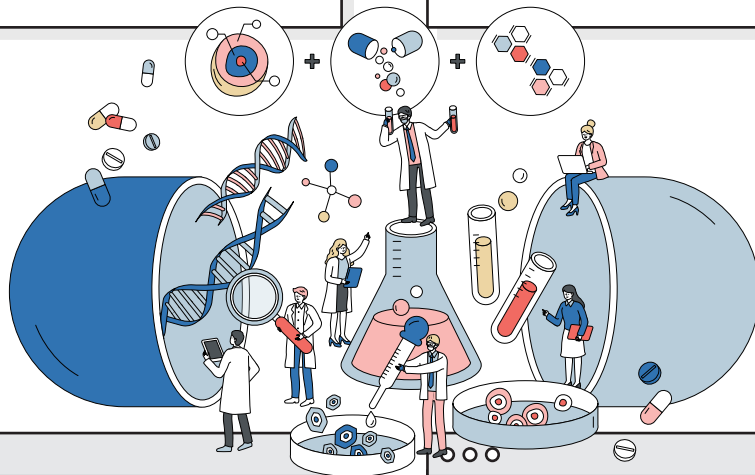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약을 섭취할 때 문득 함께 먹어도 되는 조합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식으로 인해서 약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같은 현상을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일컫는데요. 이처럼 위험한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섭취하면 위험한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감기약 먹을 땐? 카페인 함유 음식 주의하세요!

한절기 자주 복용하게 되는 감기약.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진통제 1회 분량에 커피 1잔 이상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커피나, 초콜릿 등의 카페인이 높은 음식을 함께 섭취한다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메스꺼움,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감기약과 카페인 함유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산제 먹을 땐? 오렌지에 주의하세요!

위염이 심한 분들이라면 제산제를 복용하실 텐데요.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제산 기능을 돕지만, 오렌지, 자몽, 사과나 산성 성분의 과일 주스를 함께 먹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흡수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산제 복용할 때에는 칼슘이 든 음식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칼슘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탈수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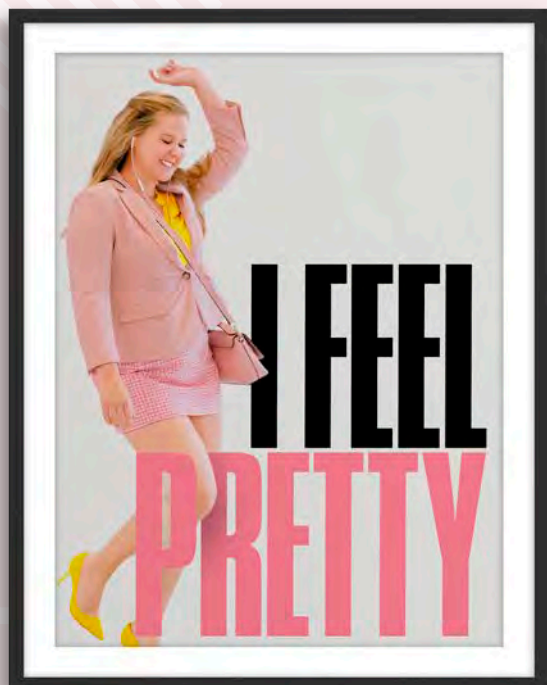


항우울제 먹을 땐? 발효 식품 음식 주의하세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신다면? 훈제연어, 치즈 등의 발효식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식품들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티라민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울증 약을 복용할 때 해당 제품들을 주의하세요!

피임약 먹을 땐? 홍삼과 인삼을 주의하세요!

홍삼이나 인삼과 같은 식품에는 여성호르몬과 유사 구조를 가진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빈혈,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하단, 피임약과 함께 섭취하게 될 때 여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유방암과 같은 여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부여 영화로 작심삼일 이제는 안녕~





행복한 변화는 자존감으로부터

<아이 필 프리티>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스스로를 행복으로 이끌 마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영화 <아이 필 프리티>는 자존감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뛰어난 패션 센스와 매력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통통한 몸매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 르네 베넷은 예기

치 못한 사고로 기절하는데요. 깨어나서 거울을 보니 얼굴과 몸이 원하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착각이었지만, 자신감을 얻은 베넷은 자신이 싫어했던 통통한 몸매로 삶을 멋지게 바꿔 나갑니다. 작심삼일로 떨어진 자존심, 그녀와 함께 채워 보는 건 어떨까요?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킹스 스피치>

이 맘때 쯤이면 “크리스마스에는 케빈과 함께”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왕위를 포기한 형 대신 주인공 버티가 영국의 국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쟁의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버

티는 아내의 소개로 괴짜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영화는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최선을 다해 말더듬증을 극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를 보며 꾸준한 노력의 위대한 힘을 느껴 봅시다.



문제 학생의 희망찬 명문대 진학기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어릴 적부터 공부와 담을 쌓은 데다가 왕따 경험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데에만 골몰하던 사야카. 이런 와중에 우연히 학원에서 츠보타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특유의 눈높이 교육과 ‘너도 할 수 있다’는 응원으로 사야카를 공부의 세계로 이끄는데요. 주변의 편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 낸 사야카는

마침내 명문대 합격증을 거머칩니다. 불량 소녀였던 사야카의 공부 도전기를 지켜본 뒤, 작심삼일로 포기했던 새해의 목표들을 다시 꺼내 보세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굳은 결심이 생기실 거예요.

삶의 시야를 넓히는 치열한 독서가 필요한가요?





식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가족의 두 얼굴>

설날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집에 모였지만, 정작 그리웠던 친척들이 크고작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함께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가 때때로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두 얼굴>에는 다양한 가족의 사례와 각각의 문제가 벌어지는 원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나

와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 책을 통해 발견해 보세요.



가족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다

<오히려 최첨단 가족>

능력 있는 배우자, 헌신적인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 우리는 그동안 이런 가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최첨단 가

족>을 쓴 박혜윤 작가는 색다른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혼으로 뚝뚝 뭉친 하나의 가족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면서도 청소, 빨래와 같은 가족적 이슈를 동등하게 나눕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라디오로 세상 소식을 전해 듣는 아날로그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오히려 개개인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최첨단 가족의 면모를 뽐냅니다. 명절을 맞아 이 책을 보며 식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상을 그려 보기를 추천합니다.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말의 힘'

<아이와의 관계는 아빠의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아이와 자주 볼 시간이 없는 요즘 부모들이기에,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아이와의 대화는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직접 경험하고 후회한 실수 경험담과 함께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40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아울러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맞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녀교육 방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이 책과 함께 굳게 닫혀 있던 자녀들의 방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말을 하나씩 배워 보세요.

▼ 막바지 겨울에 감수성을 더하는 겨울 음악 모음





뉴에이지 음악의 대가가 전하는 서정적 겨울

조지 윈스턴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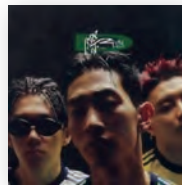
차분하고 깔끔한 음색으로 서정적인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이자 뉴에이지 음악의 대가로 손꼽히는 조지 윈스턴의 <DECEMBER>는 겨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챙겨 듣는 앨범 중 하나입니다. 1982년 발매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장 이상이 팔리며 특유의 서정성을 증명받았는데요, 대표곡인 <Thanks Giving>을 비롯해 앨범에 담긴 12곡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잔잔한 겨울을 원하신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 하면 눈사람, 눈사람 하면 이 노래

시아 <Snowman>

눈 내리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던 순수한 추억.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이 기억을 어제 일처럼 되살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호주 출신 가수 시아의 <Snowman>입니다. 그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Everyday is Christmas>의 수록곡인 이 노래는 눈사람을 애인에 빗댄 절절한 가사가 돋보이는데요, 미국의 단편 애니메이션 <Frosty the Snowman>을 보고 노랫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이 만화영화도 함께 감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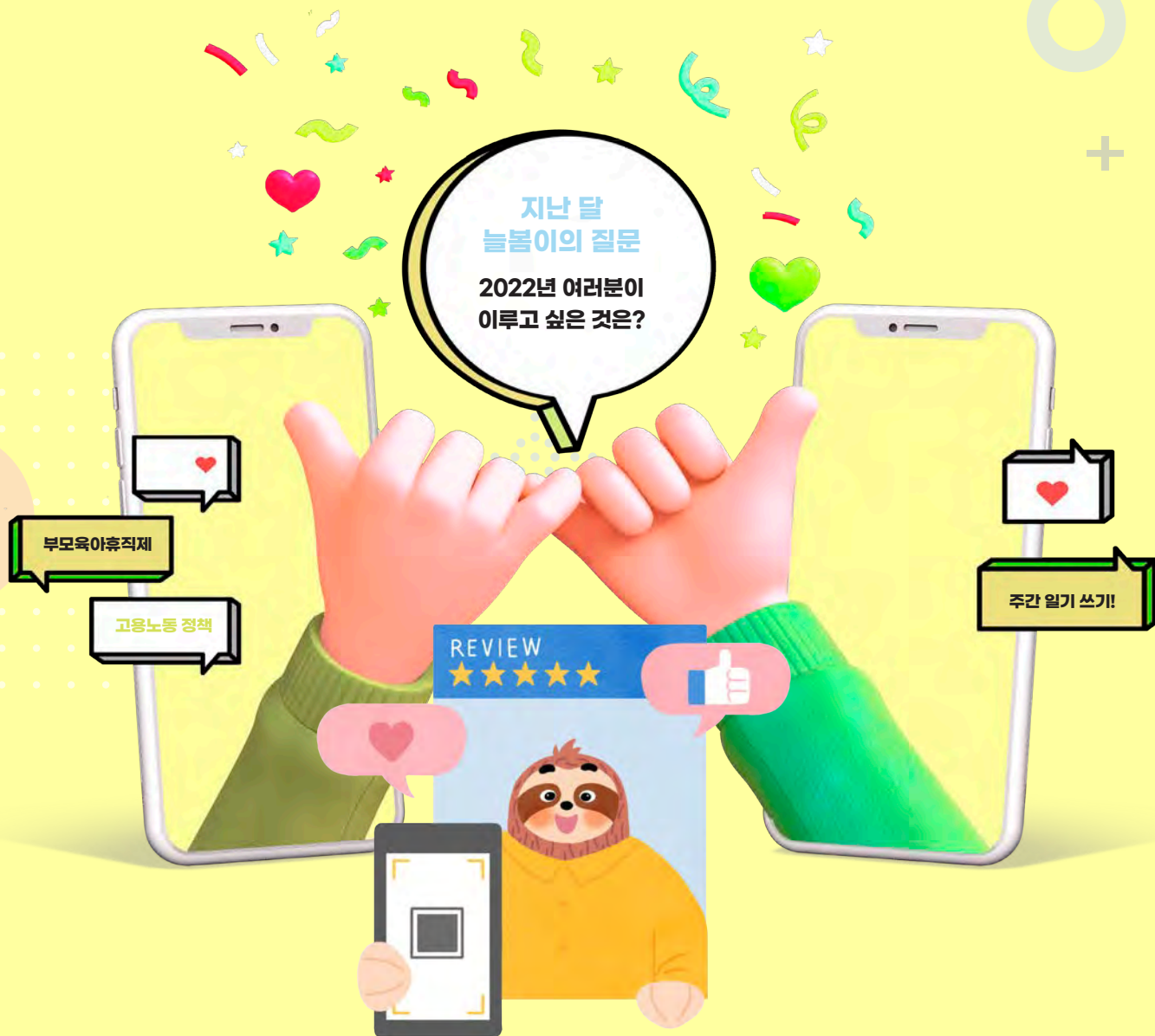


1990년대 겨울을 대표하는 레트로 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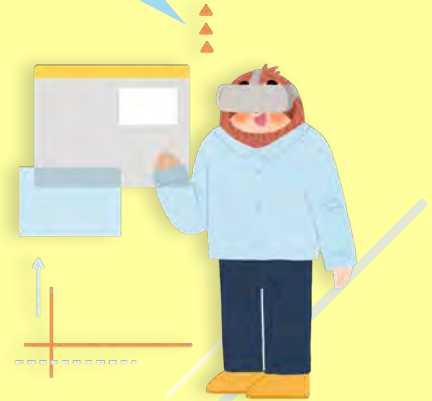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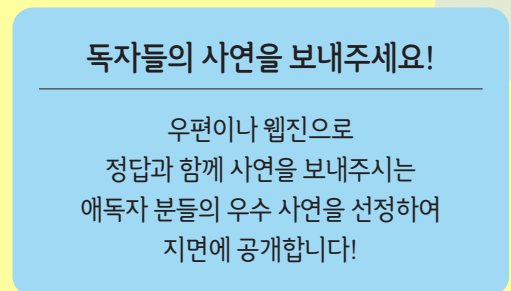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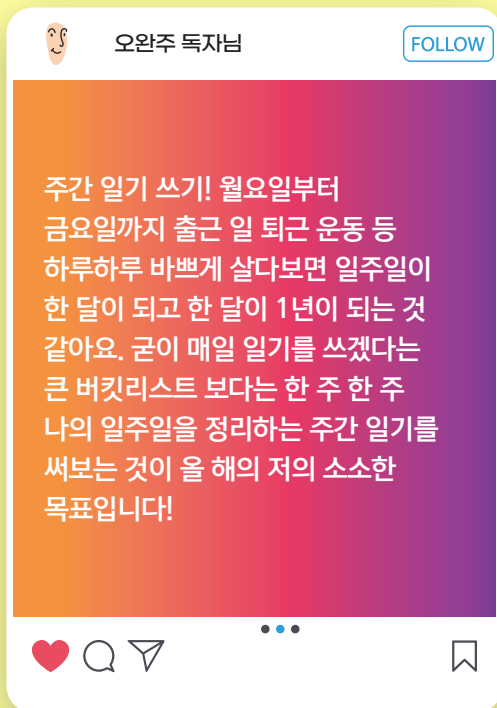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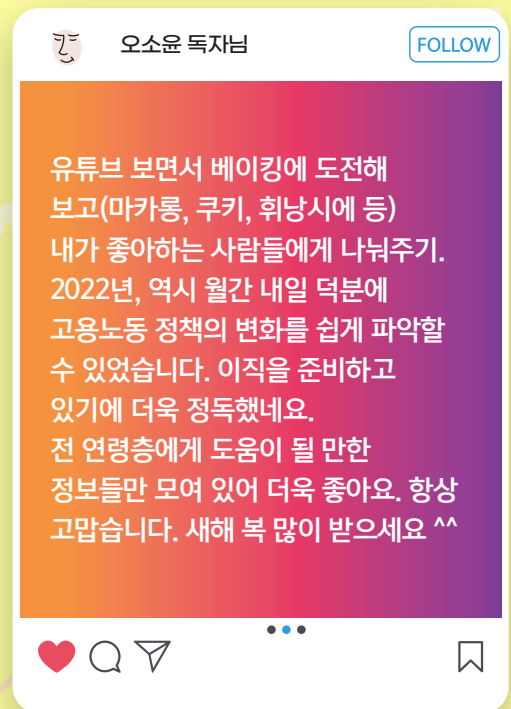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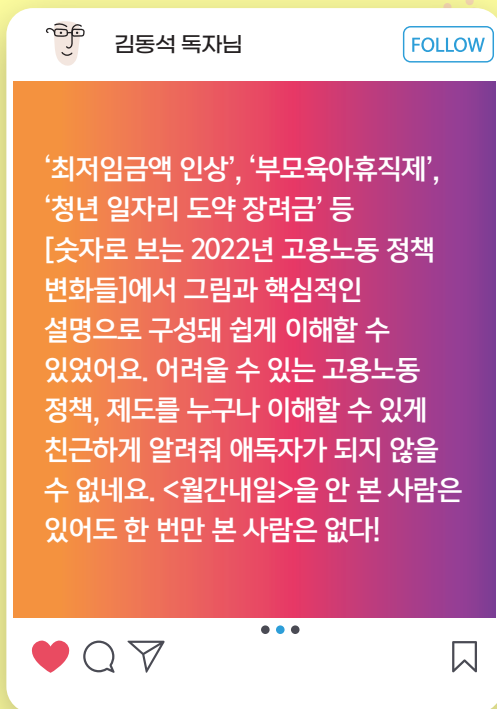
DJ DOC <겨울 이야기>

언젠가부터 붙어닥친 북고 바람이 여전히 거센데요, 20세기 말의 겨울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빼놓으면 앙금 없는 찌뽕입니다. 바로 DJ DOC의 <겨울 이야기>인데요, DJ DOC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밝은 분위기의 음률에 슬픔 가득한 가사'라는 90년대 후반 대중음악의 성공 공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겨울 이야기>를 들으면 아련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DJ DOC와 함께 그 시절의 겨울로 함께 떠나 볼까요?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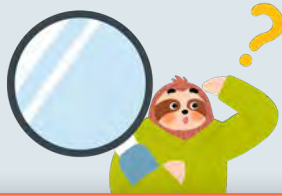


블록 퀴즈 온 더 블록! ‘숫자 퀴즈’ 편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 확대
(10만명 → ****만명**)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1.2 → 1.5조)합니다.



Hint1. 15페이지 ‘청년의 취업가능성 제고’ 파트를 확인하세요.

Hint2. 17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보험 자각지대 해소’ 파트를 확인하세요.

위 문장은 <월간내일> 2월호 system 칼럼에 실린 문장들로
2022년 일자리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문장들입니다.

각 문장에 ****의 숫자의 합**은 얼마일까요?

정답과 함께 2022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준 독자 여러분을 선정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특별한 답변은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퀴즈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1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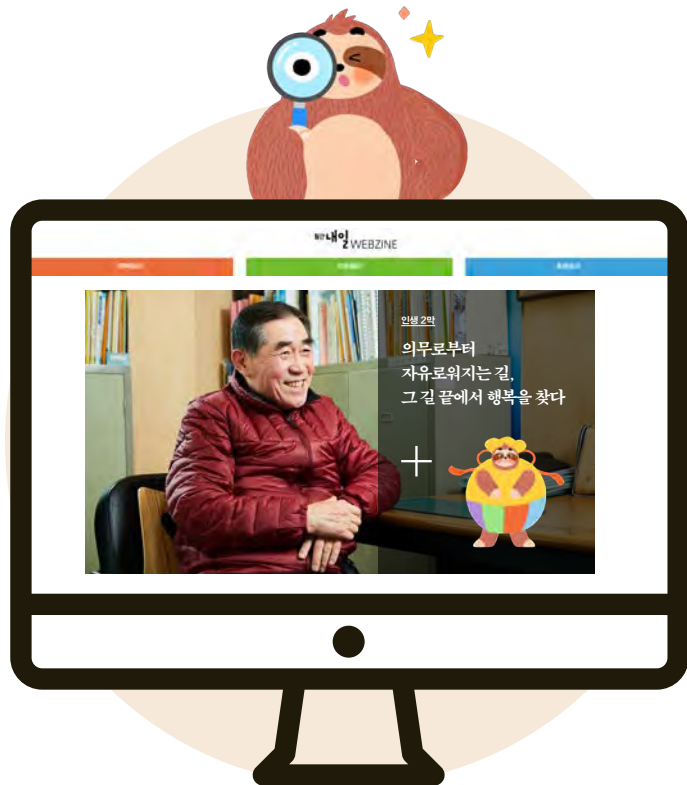
오완주(2316) / 오소윤(4527) / 김동석(6335) / 이준화(4587) / 장연숙(8219)
김현집(4240) / 유시열(5048) / 김은미(4443) / 윤후명(9211) / 서경훈(8374)

퀴즈 당첨자 분들께겐
2월 마지막주에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③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